

# 생산성 향상을

# 위한 환절기 관리 및 점검 사항

정 현 규

도드람양돈협동조합

8월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나서 새벽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농장에서는 가을 준비를 해야하는 9월이 시작된 것이다.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시작된다. 열었던 창문과 제거했던 비닐도 일부씩 쳐나가야 한다. 호흡기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은 시기가 이맘 때다. TGE, PED 등 설사병도 10월 초부터 발생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마다 당하는 피해를 반복하는 양돈장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조금만 일찍 준비하였다면 피해를 줄였을텐데....

## 1. 창문조절과 비닐치는 시기의 신속한 선택

관리자가 새벽 4시쯤 돈사를 들어가 분만사와 자돈사의 자돈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아야한다. 편안하게 포개지않고 차고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포개있으면 보온등과 창문을 닫도록 해야한다. 비닐은 벽 전체를 치지말고 밑부분부터 쳐서 찬바람이 바로 돼지에 닿지않도록 한다. 늦잠을 자느라고 새벽에 돈사에 가보지않거나, 포개있는 돼지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관리자가 의외로 많다. 또 귀찮아서 미루다보니 갑자기 추워져서 호흡기피해가 나오기도 한다.

창문을 조절해야하는 시기는 최저온도가 15도 이하가 되거나 일교차가 10도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즉, 저녁에는 창문을 닫든지 살짝 열어놓든지

▼일교차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줘야 한다.



해야한다. 관리자가 새벽에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한다면 돼지도 새벽추위로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된다.

## 2. 슬러리 돈분과 분뇨탱크를 비우자

가을철이 되면서 돈사를 점점 밀폐하기 시작



▲환절기 자돈의 행동을 유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하면 가스가 돈사내에 차게되어 호흡기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가스는 돈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돈분만 빨리 돈사밖으로 보낸다면 문제는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슬러리와 돈분장, 분뇨탱크를 이 시기에 완전히 비워서 겨울철에 분뇨탱크가 차서 돈사내의 분뇨를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돈사 안이든 밖이든 겨울철을 대비해 분뇨처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두자.

## 3. 피트 밀 환기 등 환기시설을 점검, 수리

분뇨탱크에 사람이 빠지면 산소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가득차 질식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러리나 스크레퍼 위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분뇨탱크 위에서

살고있는 사람과 같다. 즉, 피트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돼지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트에서 유해가스가 돼지한테 도착하기 전에 즉, 피트에서 밖으로 직접 배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배기를 계속해서 돼지보다 높은 곳에서만 한다면 피트의 유해가스를 돼지를 거쳐 배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돈사는 문제가 일단 발생되면 죽는 돼지의 숫자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트에서 배기하는 시설이 없다면 피트배기시설을 겨울이 되기전에 설치하도록 해보자.

피트배기시설의 경우에 큰 주관에 환을 설치하고 돈방마다 가지관을 내리는 방법과 각 돈방마다 직접 각각 굴뚝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전을 대비하거나 효율을 생각한다면 각각의 굴뚝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외에도 각종 환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환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난방장치의 정상적 작동여부 점검, 온도센서의 청소를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마무리 하여 추위진 상태에서 작동이 안되 수리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 4. 사료빈과 급이기내 청소

사료빈의 경우에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으로 빈내부 벽에 사료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가을에 정상사료와 섞여나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가끔 보게된다. 곰팡이 중독으로 유사산과 급성의 대량폐사가 나타날 수 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자.

## 5. 도체검사와 구충 등

10월쯤 환절기가 되면 농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항생제의 사료첨가 등 크리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약제의 선택, 농장 문제점의 파악을 위하여 도체검사를 실시하여 내,외부 기생

충 감염정도, 호흡기질병의 감염정도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 도체검사는 출하하는 도축장에 가서 한차 30두 정도를 검사하면 되는데, 전문수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겨울철에는 돈사를 밀폐하므로 기생충 특히 외부기생충인 옴의 전파가 잘된다. 이 문제는 도체검사에 각 농장의 옴상태를 파악하여 구충방법을 찾도록 하면 된다. 양돈단지나 양돈모임에서는 하루에 몰아서 전 회원이 같은 곳으로 출하하면 쉽고 경제적으로 도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전기시설점검으로 대량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재는 증가한다. 밀폐에 의해 먼지가 전기콘센트나 코드에 쌓이게 되고, 소독 등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보온등의 다량사용으로 과열되는 등의 요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 증가의 요인이 된다. 누전이나 코드가 벗겨졌는지를 점검한다. 보

온등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이없도록 한다. 기타 화재의원인이 될만한 것을 정리하여 매월초에 점검을 하도록 해야한다.

돈사입구와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사용법을 숙달시켜두도록 한다. 화재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기본이다.

## 6. TGE, PED 대책 수립

가을부터 피해가 나타나는 설사병을 위한 대책으로써, 먼저 현재 농장의 면역정도와 농장내에서 설사병 바이러스가 상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돈, 산차별 모돈, 이유자돈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해본다. 백신을 접종하지않은 상태에서 면역이없던 후보돈에서 면역이 생기면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상재한다는 증거가 되고, 설사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백신접종 등을 해야한다.

빠른 설사병의 발견은 피해 최소화의 중심이므로 포유자돈에서 구토를 동반한 설사, 비육돈이나 성돈에서의 설사는 즉시 검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에 TGE, PED가 의심되면 발생돈사 출입자를 한정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소독과 각 돈사입구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등의 임시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7. 돈사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와 보일러 안전 점검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 맘 때부터 화

## 8. 정전시를 대비한 대책, 발전기 등의 확보

밀폐된 돈사에서 정전은 짧은 시간내에 돼지를 폐사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정전이 되면 즉시 가동이 가능한 자가발전기 혹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1년에 몇건씩은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 9. 전문수의사와 상담을 통한 관리

평소에는 직접 치료도하고 했지만 환절기, 겨울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그만 돼지의 이상도 전문수의사와 상담과 진단을 하여 집단폐사가 많은 추운계절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환기로 인한 문제가 크므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상담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이게 된다. 전문수의사의 적절한 이용이 필요하다.

농장의 내가 모든 것에 전문가일 수는 없다. 고집이 농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많은 경우와 여러 농장을 경험하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노력이 돈버는 지름길이다. **양돈**